

Morning Meeting Brief

Highlights ...

투자포커스

독일 현재 판결, 낙관적 결과를 기대하는 이유

- 12일 오후 5시(한국시간)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에 대한 위헌 소송의 일부인 ESM 집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 독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상의 합헌 결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 높음
- 독일 현재는 유사한 쟁점을 가졌던 EFSF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조건이 부여될 가능성 높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위기국 국제매입과 관련된 조건 부여될 가능성 낮아

오승훈 769.3803 oshoon99@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컴투스: 어닝과 성장모멘텀 모두 갖춘 기업

- 목표주가 81,000 원으로 24.6% 상향 조정, 매수 의견 유지
- 2012년 및 2013년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 어닝과 성장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강록희 769.3097 lhkang@daishin.com

한국가스공사: 자본확충 방식은 先 미수금 유동화, 後 유상증자의 순

- 자본확충의 방식은 先 미수금 유동화, 後 유상증자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미수금 유동화의 실시는 결과적으로 순차적인 요금인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 유상증자는 자기자본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장이익을 증대시켜 수익가치를 높여줄 전망

양지환 769.2738 arbor@daishin.com

신세계: 단기 관점보다는, 2013년 이후 중장기 관점에서 매력적

- 목표주가 260,000 원으로 하향 조정하나 매수 의견 유지
- 8월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고 연말 업황 회복 확인 및 인천점 부지 문제 해결전까지는 단기 약세 전망
- 다만 2013년 이후부터는 손익 개선 뚜렷, 중장기 성장 전략도 긍정적으로 평가

정연우 769.3076 cyw92@daishin.com

투자포커스

독일 현재 판결, 낙관적 결과를 기대하는 이유

Strategist 오승훈 769-3803 oshoon99@daishin.com

가처분소송 기각될 가능성 높아12일 독일 현재 판결은 ESM 집행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

12일 오전 10시(독일 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오후 5시)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에 대한 위헌 소송의 일부인 ESM 집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이번 위헌 소송은 6월 29일 제기되었고, 7월 10일 가처분소송에 대해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9월 12일로 연기했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가처분 소송 판결이 위헌소송의 예비적 판결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사실상 ESM 출범과 관련된 독일발 불확실성은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가처분소송 기각될 가능성 높아

1년전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소송과 거의 유사한 쟁점을 가졌던 EFSF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소송 모두 구제기금 참여에 따른 예산자주권 침해가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위헌소송의 핵심 당사자도 펠트 가우바일러(기독교사회당)의원으로 동일하다. 독일 현재가 EFSF와 다른 잣대를 ESM에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소송을 기각하면서 어떤 조건이 첨부되는지가 중요

EFSF 위헌소송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첨부된 조건은 구제 금융 제공에 관한 중요 결정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최종 판결(12월 예정)전에 ESM이 가동되기 때문에 조건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이 걱정하는 ESM의 국채매입을 지연시키는 조건이 첨부될 가능성은 낮다. 2012년 2월 28일 독일 현재 판결을 보면 위기국 국채매입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의 승인이 아닌 특별위원회의 단독 승인을 허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이 걱정하는 위기국 국채매입과 관련된 조건이 첨부되지 않는다면 독일 현재발 위험은 점차 소멸될 것이다. 이제 준비된 위기 대응 프로세스가 가동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참조] [표1] 독일 헌법재판소의 구제기금과 관련된 위헌소송 사례

[표1] 독일 헌법재판소의 구제기금과 관련된 위헌소송 사례

<p>[EFSF참여에 따른 의회 예산지출권 침해에 대한 위헌 소송]</p> <p>위헌소송 신청인: 가우바일러 기독교사회당 소속 의원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켈 등 6명</p> <p>위헌소송 내용: 구제금융지원안에 독일 참여하는 것은 의회 예산권한을 침해함으로써 민주적인 표현과 재산보호에 대한 권리 훼손</p>		
2011.7.5	청문회	
2011.9.7	최종 판결 - 합헌	독일의 EFSF 분담액 제공 합헌 판결. 구제금융제공에 관한 중요결정은 반드시 예산위원회의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건 첨부
<p>['EFSF 소위원회'의 권한 침해에 대한 위헌 소송]</p> <p>위헌소송 신청인: 사회민주당 스펀 솔츠 의원과 페터 단커르트 의원</p> <p>위헌소송 내용: EFSF 관련 비상시 또는 기밀유지 필요시 신속한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설립한 분과위원회 위헌 여부</p>		
2011.10.28	가처분 신청 판결 - 인용	유로존 기금 관련 분과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당분간 금지한다(가처분신청 수용)
2012.2.28	최종 판결 - 위헌	EFSF 구제금융 집행 신속승인 불가 독일 헌법재판소가 연방하원에 설치된 이른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소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 확정 다수 의원의 결정권 침해 (단 EFSF가 금융시장에서 위기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소위가 연방하원 전체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독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힘)
<p>[ESM, 신재정협약 추진 과정에 대한 위헌 소송]</p> <p>위헌소송 신청인: 독일 녹색당</p> <p>위헌소송 내용: 독일 정부가 ESM과 신재정협약 논의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공하지 못했음</p>		
2012.05.25	현재에 위헌소송 제기	정부가 2011년 2월 4일 있었던 유럽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헌법23조 2항(하원과 상원은 유럽연합의 사안에 대해 참여할 권리가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하원과 상원에 게 EU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을 위반했다며 소송 제기
2012.06.19	최종 판결 - 위헌	현재는 독일 정부가 헌법23조 2항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림
<p>[ESM,신재정협약의 예산자주권 침해에 대한 위헌 소송]</p> <p>위헌소송 신청인: 가우바일러(기독교사회당)의원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켈 등 37,000명</p> <p>위헌소송 내용: ESM 출범이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자주권을 침해함</p>		
2012.6.29	현재에 위헌소송 제기	6.29 독일 연방하원은 찬성 491, 반대 111(기권6)으로 ESM통과
2012.7.10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청문회	청문회가 끝나고 가처분소송 판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판결 연기
2012.9.12	가처분 소송 판결	대부분 독일 의원들과 독일 정부는 가처분소송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
2012.12	최종 판결	

컴투스
(078340)

어닝과 성장모멘텀 모두 갖춘 기업

투자포인트

- 목표주가 81,000원으로 24.6% 상향 조정, 매수의견 유지
- 2012년 및 2013년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 어닝과 성장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강록희 769.3097
lhkang@daishin.com

BUY

[매수, 유지]
인터넷/게임업종

현재가 67,700

목표주가 (상향) **81,000**

Comment

목표주가 81,000원으로 24.6% 상향 조정, 투자등급 매수의견 유지

목표주가를 24.6% 상향 조정한 81,000원으로 제시한다. 목표주가는 2013년 예상 EPS 2,890원과 Target PER 28배를 적용하였다. 또한 모바일게임 시장 확대와 어닝모멘텀 강화에 따라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관점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및 2013년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2012년 예상 매출액은 전년대비 122.8% 대폭 성장한 807억원,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546.5% 급증한 193억원으로 큰 폭의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영업이익률도 전년대비 15.7% 개선된 23.9%의 고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및 2013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이유는 1) 모바일게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예상, 2) 모바일게임 개발 경쟁력과 네트워크 운영 능력 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 보유, 3) 주력게임인 타이니팜의 추가 매출 성장 가능성, 4) 수익레버리지 효과 본격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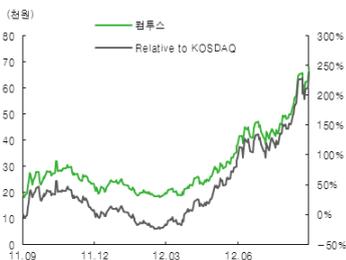
2013년 예상 매출액은 전년대비 38.2% 증가한 1,115억원, 영업이익 337억원(+74.3%), 영업이익률 30.2%로 어닝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닝과 성장모멘텀을 모두 갖춘 기업

모바일게임 시장의 급성장과 게임 개발과 네트워크 운영 능력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중소형게임사에서 대형게임사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SDAQ	514.42
시가총액	6,829 억원
시가총액비중	0.6%
자본금(보통주)	50 억원
52주 최고/최저	67,700 원 / 18,200 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07 억원
외국인지분율	17.3%
주요주주	이영일 외 7 인 21.5%
	Storm Venture Associates 2 LLC
	외 1 인 7.7%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12.3	39.3	91.2	256.3
상대수익률	10.7	28.8	74.6	226.2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억원, 원, %)

	2010A	2011A	2012F	2013F	2014F
매출액	309	362	807	1,115	1,428
영업이익	26	30	193	337	457
세전순이익	44	45	244	353	477
총당기순이익	41	41	209	292	393
지배지분순이익	41	41	209	292	393
EPS	411	411	2,069	2,890	3,899
PER	32.4	53.5	32.7	23.4	17.4
BPS	6,150	6,940	9,058	12,003	15,966
PBR	2.2	3.2	7.5	5.6	4.2
ROE	13.4	6.3	25.9	27.4	27.9

주: 영업이익은 회사발표 기준,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수치 기준
자료: 컴투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한국가스공사 (036460)

자본확충 방식은 先 미수금 유동화, 後 유상증자의 순

양지환 769.2738
arbor@daishin.com

BUY

[매수, 유지]

전기가스업종

현재가 58,000

목표주가 (유지)
68,000

투자포인트

- 자본확충의 방식은 先 미수금 유동화, 後 유상증자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미수금 유동화의 실시는 결과적으로 순차적인 요금인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 유상증자는 자기자본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장이익을 증대시켜 수익가치를 높여줄 전망

Comment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8,000 원 유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8,000원을 유지한다. 9월 7일 발표된 정부의 “세일가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 발표 이후 동사의 유상증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상증자 이슈가 나온 배경은 세일가스 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경쟁사대비 자본금 규모나 투자비가 미약하여, 투자재원확보를 위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때문이다. 유상증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나, 결론적으로 유상증자는 동사의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유상증자는 요금기저에 가중평균투자보수율을 반영해 산출되는 동사의 이익구조상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보장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 기대, 2)누적된 미수금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유증을 실시하기보다는, 미수금 조기회수방안을 선 실시후 유상증자를 택할 것으로 예상, 3)증자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해외 E&P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사의 E&P가치의 증대를 통한 기업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증자의 규모에 따라 기존주주들의 주주가치 희석효과가 유증에 의한 이익증가효과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나, 10월과 12월 모잠비크에서의 추가 탐사정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상쇄해줄 것으로 판단한다.

KOS I	1924.7
시가총액	4,328 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4%
자본금(보통주)	386 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0,900 원 / 29,300 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91 억원
외국인지분율	8.2%
주요주주	대한민국정부(기획재정부) 외 1인
	51.3%
	국민연금공단 5.1%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4.4	11.3	35.6	70.5
상대수익률	-5.0	12.6	29.3	60.6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의 증가는 동사의 보장이익 증가로 연결

동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당해년도의 요금기저(전년도 유무형고정자산+당해년도 영업용 운전자본)에 가중평균 투자보수율(WACC:타인자본비율*Cosf Of Debt+자기자본비율*Cost Of Equity)을 반영해 산출된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면 1)WACC의 상승(Cost of Debt에 비해 Cost of Equity가 높기때문), 2)요금기저의 증가 등으로 보장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가스도입계약과 연계하여 E&P 투자에 나설 경우는 향후 요금기저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수 있으며, 도입계약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E&P 가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2011년 동사의 요금기저는 13 조 3 천억원, 별도 영업이익은 1 조 128 억원으로 가중평균투자보수율은 약 7.6%로 추정되며, 2012년 동사의 요금기저는 약 17~18 조원으로 추정된다.

신세계 (004170)

단기 관점보다는, 2013년 이후 중장기 관점에서 매력적

정연우 769,3076
cyw92@daishin.com

BUY

[매수, 유지]
유통업종

현재가 216,000

목표주가 (하향) **260,000**

KOSPI	1920
시가총액	21,266 억원
시가총액비중	0.2%
자본금(보통주)	492 억원
52주 최고/최저	322,500 원 / 183,000 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3 억원
외국인지분율	53.7%
주요주주	이명희 외 2 인 27.1%
	Aberdeen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외 4 인 10.2%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5.1	-0.2	-2.0	-26.5
상대수익률	-5.7	1.1	-4.7	-30.6



투자포인트

- 목표주가 26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나 매수의견 유지
- 8월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고 연말 업황 회복 확인 및 인천점 부지 문제 해결전까지는 단기 약세 전망
- 다만 2013년 이후부터는 손익 개선 뚜렷, 중장기 성장 전략도 긍정적으로 평가

Comment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매력적인 종목

소비경기 부진으로 손익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인천점 부지 확보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단기적으로는 투자 매력도가 낮을 수 있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뚜렷한 손익 개선이 전망되고 중장기 성장 전략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2012년 말~2013년 초 시점이 절호의 매수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목표주가는 기존 265,000원에서 260,000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목표주가 하향은 단기 손익 부진폭이 예상치보다 큰 점과 인천점 부지 확보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서 2012, 2013년 EPS를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2.6%, -5.1%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8월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

8월 실적은 총매출액이 3.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5% 이상 역신장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점신장률이 추석기간 변경과 태풍 영향, 경기점, 강남점 리뉴얼 진행에 따라 -5%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7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신규점인 의정부점과 프리미엄 슈퍼인 SSG 청담, 마린시티는 영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오픈 초기로 손익 개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수 있지만 2013년 이후에는 긍정적 요인들이 다수

단기적으로 동사 주가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에 비해 손익이 부진하고 인천점 부지 확보에 최대 1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3년 이후부터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부각되기 시작할텐데, 의정부점이 손익 개선에 기여하기 시작하고 그동안 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온라인몰 사업도 전략 변화를 통해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좀 더 시간을 확장시켜보면 2014년부터는 센텀시티점, 타임스퀘어점 감가상각비가 마무리되면서 2013~2014년 기간동안 동사는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기업으로 부각될 것이고 2015년 이후부터는 대구, 하남, 김해 등에서 복합쇼핑몰이 개점될 예정이어서 손익 개선과 성장 기대감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 원)

구분	9/11	9/10	9/07	9/06	9/05	09월 누적	12년 누적
개인	57.0	-147.7	-733.7	112.7	549.0	-193	-10,439
외국인	209.0	208.8	307.8	-192.9	-59.7	575	12,215
기관계	-147.2	-67.0	409.6	68.8	-489.3	-302	1,582
금융투자	2.6	-2.5	-71.5	-4.9	-136.1	-320	1,319
보험	-12.0	-17.9	53.4	-3.9	-47.9	-8	2,306
투신	-35.5	-86.3	197.9	111.1	-81.5	111	-3,047
은행	-6.1	10.7	-4.8	-0.2	-24.3	-27	389
기타금융	2.3	-0.1	4.1	-0.2	-2.1	-4	-69
연기금	46.5	35.3	55.6	-15.2	34.9	304	953
사모펀드	-15.2	-15.3	49.3	-7.2	-14.9	-7	-8
국가지자체	-129.9	9.2	125.7	-10.5	-217.5	-351	-261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 원)

순매수	외국인		기관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	38.1	현대중공업	6.7	한전 KPS	71.3	삼성전자	18.6
한전 KPS	27.9	삼성전기	6.3	하나투어	18.3	현대차	18.4
고려아연	21.0	대우조선해양	5.8	GS	11.5	현대모비스	17.9
현대차	15.5	LG	5.7	KT	10.1	LG 디스플레이	16.1
LG 디스플레이	14.3	GS	5.1	현대중공업	10.0	기아차	14.6
현대모비스	13.7	아모레퍼시픽	4.9	한국가스공사	4.0	호남석유	11.8
LG 전자	10.7	CJ	4.1	호텔신라	3.5	신한지주	10.7
기아차	10.5	LG 생활건강	4.1	SK 텔레콤	3.4	두산인프라코어	10.0
KT	8.9	대림산업	3.8	삼성전기	3.3	삼성테크윈	9.1
삼성엔지니어링	7.9	S-Oil	2.9	아모레퍼시픽	3.2	하나금융지주	8.2

자료: KOSCOM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 원)

순매수	외국인		기관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오스템임플란트	2.1	다음	3.0	CJ E&M	7.0	예림당	8.4
컴투스	1.8	파라다이스	1.1	파라다이스	5.3	인터플렉스	5.1
인터로조	1.4	CJ 오쇼핑	1.0	메디톡스	3.5	오스템임플란트	4.9
서울반도체	1.0	심텍	0.9	컴투스	2.6	다음	3.5
태광	0.9	비아트론	0.9	서울반도체	2.2	이라이콤	1.7
에스엠	0.9	인터플렉스	0.8	SK 브로드밴드	1.9	네패스	1.7
유진테크	0.8	OCI 머티리얼즈	0.6	코오롱생명과학	1.7	와이지-원	1.3
안랩	0.8	케이아이엔엑스	0.5	비에이치	1.4	씨티씨바이오	1.0
모두투어	0.7	성광밴드	0.4	휴맥스	1.3	비아트론	0.9
셀트리온	0.6	메가스터디	0.4	에스엠	1.1	메디포스트	0.9

자료: KOSCOM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 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삼성전자	345.6	5.6	GS	40.7	1.5
KT	43.4	4.4	현대중공업	34.7	3.3
현대모비스	36.4	1.7	CJ 제일제당	32.1	-4.5
LG 디스플레이	32.7	1.9	현대제철	24.5	4.2
현대해상	29.6	2.6	CJ	23.8	3.5
한전 KPS	28.6	-6.4	LG 생활건강	20.3	-2.1
S-Oil	25.3	1.9	만도	20.3	-1.2
호남석유	24.2	2.7	오리온	18.8	-3.6
SK 텔레콤	24.1	2.0	LG	18.4	3.4
GS 건설	23.6	7.6	SK C&C	17.5	3.9

자료: KOSCOM

기관 (단위: %, 십억 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LG 전자	90.9	4.0	삼성전자	149.8	5.6
한전 KPS	71.9	-6.4	기아차	131.1	1.3
대림산업	37.3	5.9	삼성테크윈	87.3	-3.8
GS	36.8	1.5	현대차	60.6	3.5
현대건설	35.1	5.7	현대모비스	52.6	1.7
SK 하이닉스	33.0	3.5	한국전력	41.7	0.2
KB 금융	32.5	5.1	POSCO	36.3	2.1
현대중공업	28.1	3.3	락앤락	28.8	-2.3
하나투어	26.3	2.8	현대해상	27.1	2.6
KT	25.3	4.4	OCI	23.1	1.3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 달러)

구분	9/11	9/10	9/07	9/06	9/05	09월 누적	12년 누적
한국	185.6	183.8	282.0	-165.4	-49.0	562	10,809
대만	20.3	105.9	294.3	-122.0	-306.5	-66	651
인도	--	131.4	92.8	24.5	-26.4	268	12,556
태국	--	27.4	8.9	-4.2	6.0	71	2,096
인도네시아	--	29.1	50.4	-20.1	-22.2	58	808
필리핀	2.0	20.5	19.9	-1.5	-5.0	39	2,142
베트남	--	1.8	1.0	1.7	2.8	8	14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크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크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